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社說

朝鮮發明品展覽會

—朝鮮人의努力은如何?—

一

朝鮮發明品展覽會가 今年에도 京城의 俟城舘에서 열리게 된다 斯界의 向上發展을 促進케 하기爲하야 一般의 注意를 쓰어주려고 展覽會를 열려는것이라 한다 그들의 說明에 依하건대 朝鮮의 發明界도 해마다 擡頭되어 오는것이 事實인데 그의 補導機關이 업고 만흔 發明者는 困한 赤貧者가 만허서 案出한 自己의 發明品에 對하야 權利를 保護할 줄을 모르고 特許權의 許可를 엇는 手續을 알지 못하며 또는 案出하되 模型을 맨들 資金이 업서서 그대로 세상에 무치어 업서버리는 수가 만흠으로 그것을 잘 補助或은 誘導하기 爲하야 된것이 朝鮮發明協會이오 이 發明協會의 主催로 되는것이 發明品展覽會이라 한다

二

發明品展覽會는 朝鮮서 처음 되는 일이 아니다 그 成績이 엇더할는지는 알수 업지마는 이것이 重要한 一展覽會되는것은 누구나 한가지로 알 바이다 發明協會는 湯淺政務總監이 名譽의 會長이오 池田殖産局長이 會長이며 其他 日本人 特權階級의 사람들에 依하야 執掌하는것이니 그會體의 엇더……

……각하여버리는사람조차잇다 이런것은자못看過할수업는 性行上의一大缺陷이라고 斷言할만하다 朝鮮人이 文化上으로 또 産業上으로 지금 開拓할 重要한 한길은 이 發明創作의 길인것을 니저서는 아니될것이다

四

仁川의 一製靴業者는 萬能底를 發明하엿다 京城의 某識者는 燃料節約器를 創案하엿다 端川의 某靑年은 揚水機와 撈掘機를 考案하엿다 이런것은 所謂發明界에 잇서서는 그다지 稀한 일바 아니지마는 커서 一社會의 生活上에 多少의 便利를 줄수잇고 적더라도 一家生計를 裕足케하야 남음이 잇게할수잇다하면 그도 또한 매우 價値잇슬일이다 만일 이러한것으로부터 시작하야 全朝鮮人의 經濟生活에 큰 影響이 잇거나 或은 世界的으로 推賞과 稱美를 어들수잇는것을 發明하게 될수잇다하면 民族的運命을 改善하는 힘도 될것이오 當者의 福利는 더욱 크다할것이다 日本人의 七日間의 發明或은 新案特許出願의 提出及接受가 約一百四十餘에 達한다하니 그도 자못 旺盛한 者이다 朝鮮人의 자고잇는 創作發明의 天才를 現代的으로 만히 鍊磨하고 發揮하야 一家도 부러 一社會를 繁榮케하기를 日久月深으로 빌고 바라는바이다

佛國이不贊成이면 軍縮會議延期도未知

日英米豫備協定이잇슬듯

(倫敦十一日發) 確實한側의消息에依하면 英政府는第二次海軍軍縮에關한米國大統領의提案에協同할用意가잇다는바 英政府의政策은華府會議當時와何等變更이업고軍備制限의目的에對하야多少이나마刺戟을與함은世界平和를爲하야가장希望하는바이다 또한海軍軍備費用을輕減할수잇는것은보다歡迎하나巡洋艦制限의問題는專門家가審議의結果、決定될것이라고한다 또한右提案에對하야最初當地에서는熱心으로視하엿스나政治家及專門家의眞實한考究와佛國西政府의態度가斷히消極的인外에별로서冷靜에歸하엿다 即佛國西로서新海軍軍縮會議開催에贊成치안흘時에는右運動은延期하게될는지도알수업다고한다 그러나一方日英米三國은巡洋艦制限에對하야豫備協定을하리라고臆測하는者도잇더라

梁內閣成立으로 中政局變動招來

◇…顧內閣은不支持?

第二次中英交涉에 新嘉坡로撤兵要求

◇…中英交涉의難關

總工會解散과 蔣介石의右傾說

◇……事實?中傷?

米大統領教書와 聯盟委員會態度

後閣首班은 梁氏로決定

六百萬圓으로 群廣鐵道敷設?

資本主는日人들

咸鶴間의 軌道自働車

不平이만타

玄海灘속으로 電話가通한다

遞信局은考慮中 ◇實現은四年後일듯

衛益農民 臨總決議

水組問題로

棉港木浦의 繰綿輸出激增

二個月間百餘萬圓 比前同期四十萬圓增

平壤洋服 職工青年會

十日에創立

京仁間往復 自轉車로

慶南水產 試驗場

實現運動

宣川遊興費 十一萬九千圓

元山市場 移轉할計劃

是製線發電

多端한問題를떠나 金海農校期成

압흐로擴張할터

家庭福利를企圖 產業協同社發起

白山青年會臨總決議

金堤道路改修 一萬圓으로

地方紹介 (五)

嶺南의絶景地 녯昌寧國

安東郡 其一

觀察府를設置

畵屛을펴노흔

羅漢佛의彫刻

果樹栽培도

四個月間 斷煙貯金 六十六圓餘

元靑事件後 元山青年決議

安州水組 地主懇親會

讀者優待로 每夜大盛況

聚星座金泉서

車貨問題로 自營을計劃

鎭川檗業會가

洪城에 開校될 工業學校

◇科는四分

仁川江華間 晝間만復舊

附近流氷으로

舒川郡에 無料診療

洪原에도 水利難

一般은望義

各地鄕祀

仁川

地方人事

寸鐵

社告

映畵小說 白衣人 【十九】

李慶孫 作